

##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예식서

2020. 11. 29. 11:28- / 프라하 꼬빌리시교회



요제프 몰나르, <아브라함의 여정> (1850) / 헝가리국립미술관(부다페스트)

### 일러두기

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련된 간단한 주일 가정예배 예식서입니다.
2.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의 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3. [○인도자/◎다같이] -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합니다.
4. 찬양/묵도로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봉헌은 미리 준비된 함/용기에 합니다.

## 목도

**예배의 초청:** 시편 103: 1-6, 13-14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 ◎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 ◎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 ◎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 ◎ 아멘

## 여는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주간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 당신은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아멘.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으로 다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 감사찬송

○ 찬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통41/새67) 함께 하겠습니다.

(통 41)  
찬양  
Watts, 1707  
보통으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 150:2)  
MANOAH: 8.6.8.6.  
H. W. Greatorex's Collection, 1851

#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3.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4.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참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 멘

## 성경 읽기

○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5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 말씀 나눔

○ 다음 질문들을 따라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1.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1)
2.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1)
3.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2-3)
4.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
5. 아브람은 어디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5)
6. 예배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7. 아래의 설교문을 나누어 읽고, 각자 조용히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가라!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것인가? 고향, 히브리어로 '땅'을 말합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 익숙한 환경,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척을 떠나라 합니다. 그가 속해 있던 혈연공동체, 맺고 있던 관계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가 따르던 권위, 의지하던 울타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 왜 떠나라 하실까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가 그를 통해 형성될 것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그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왜 꼭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가 있던 자리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건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얽매어 있는 사람, 그 문화와 관계의 틀 안에 갇힌 사람이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 필요했습니다. 가라! 떠나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익숙한 환경, 안정된 삶의 조건에서 불러 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새로 빚어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떠나서 가다보면 그 여정 중에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왜 이런 모호성이 필요하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땅에 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제자리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여정에 오를 때, 그 한 발 한 발 떼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생겨납니다.

○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은 아브람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여주실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 아브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인생

을 살만큼 산 나이였지만,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선 안 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온 고향 '우르'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반대방향인 '가나안'을 향해 가보자, 어쩌면 아브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것처럼 불확실한 중에도 그는 떠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남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곤 하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체코로 떠나올 때 이 말씀을 생각했고, 그 후에도 거듭거듭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오게 됐을까? 여기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떠남에는 두 종류의 떠남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 결과적으로 똑같이 낯선 땅에 있다 해도, 이 둘은 상당히 다릅니다.

○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드림' 속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하란을 들렀는데 살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가나안까지 굳이 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브람은 아버지를 따라와 하란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꾸려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나안 드림' 속에서 떠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떠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거기서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제 맘대로 접어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 우리가 체코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본 경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그가 외국에 나와 살고 있다 해도, 여전히 그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설령 가나안 드림, 유러피안 드림 속에서 떠나온 여정이었다 해도, 아브람처럼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 여기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며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에서 아브람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아브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의 믿음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말하는 것이 아마 더 옳을 것입니다. 가라!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찬송과 봉헌**

○ 찬송 <인류는 하나되게>(통272/새475)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중에 봉헌하겠습니다.

475

# 인류는 하나 되게

(통일 272)

홍헌설, 196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화해와 평화

인류는 한거룩: 7.7.7.7.7.

나인용, 1983

보통으로

1. 인 류 는 하 나 되 게 지 음 받 은 한 가 족  
 2. 죄 악 는 은 뿌 리 깊 게 우 리 맘 에 도 사 려  
 3. 주 님 은 은 십 자 가 로 화 해 하 는 본 보 여  
 4. 영 광 도 부 끄 럽 도 함 께 받 는 우 리 니

우 리 는 그 속 에 서 협 조 하 며 일 하 는  
 우 편 당 심 의 일 으 키 며 차 별 의 식 념 어 서  
 믿 음 과 소 망 으 로 든 든 하 게 몽 처 는 서

형 제 와 자 매 로 다 형 제 와 자 매 로 다  
 대 화 를 막 으 려 다 대 화 를 막 으 려 다  
 새 세 계 명 하 신 다 새 세 계 명 하 신 다  
 이 어 뚫 고 가 자 이 어 뚫 고 가 자

쉬운 기타코드(capo=3rd) Eb→C Fm→Dm Bb→G Cm→Am Gm→Em

<http://blog.daum.net/dw7055>

## 중보기도

○ 다함께 기도합니다.

○ 사랑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베푸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움의 길이 끊긴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오늘의 상황 속에서 그 동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각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켜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유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꼬빌리시 다민족 공동체와 함께하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을 주관하시며, 사랑 안에서 더 온전히 하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세상의 모든 당신의 교회들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열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에 당신의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 영광찬송

- 찬송 <세상 흔들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 세상 흔들리고

(원제: 오직 믿음으로)

고형원

1. 세상 흔들리고 - 사랑들은 변하 - 여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2. 믿음 흔들리고 - 사랑들 주를 믿어 - 나도 나는 주를 섬 - 기리

주님의 사랑은 - 영원히 변하지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주님의 나라는 - 영원히 쇠하지 -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해

오직 믿음으로 - 믿음으로 내가 살리 라

오직 믿음으로 - 믿음으로 내가 살리 라 - -

오직 의인은 -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오직 의인은 -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라 - -

## 교회소식

1. 서로를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 보흐니체병원 환우들을 위한 온라인 음식/물품 바자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고 수고해주시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땅의 소외된 자리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일(12.6)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라이브 다민족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당일에 예배당에서 체코, 한국, 일본 목회자 인도로 들려지는 예배실황을 교우님들은 각 가정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미가입자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언어자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진행되지만 아침에 조금 서두르셔서 올해의 마지막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세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체코비상상황: 12월 12일까지)

## 축복과 파송

-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 아멘.

-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